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7.(금) 석간 < 2026. 11. 27.(금) 06:00 >

동반성장주간(11.23~27) 시리즈 ⑤

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로 이어지다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 해외시장 진출·공공서비스 혁신·기술 국산화 등 성과공유 우수사례 3건 발표
- 우수과제를 공동 수행한 수탁·위탁기업에 중기부 장관 표창 총 6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2026년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코엑스 마곡에서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과제 3건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한 성과공유 우수과제 중 한국국제협력단·에이치로보틱스㈜와 광주교통공사·㈜아이지코의 사례를 발표했다. 각각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모바일 기반 무임 승·하차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한 사례다.

아울러 중기부는 「2026년 올해의 상생기업대상 기념식」에서 성과공유 우수과제 3건을 함께 수행한 수탁·위탁기업에 중기부 장관 표창 총 6점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안세기술이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 제·방빙 : 항공기 외부에 쌓인 눈과 서리 등을 제거하고, 운항 중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작업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창출한 성과를 현금 배분, 물량·매출 확대 등 사전에 약속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성과공유 우수과제 3건은 ▲해외시장 진출, ▲공공서비스 혁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시장 진출) 한국국제협력단·에이치로보틱스(주)

한국국제협력단과 에이치로보틱스㈜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 의료기기 관련 국내 특허 등록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에이치로보틱스㈜가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재활로봇을 시범 구매하고 보유한 해외 협력망을 활용해 현지 의료기관 실증 등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에이치로보틱스㈜가 국내 특허 3건을 등록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 한국국제협력단은 재활로봇 총 3대를 구매하고 키르기스스탄 국립아동병원 등 현지 의료기관에 설치해 재활치료에 시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에이치로보틱스㈜는 총 5.2억 원 규모의 제품 구매 및 해외 실증 지원을 확보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내 재활로봇 기술을 활용해 해외 공공의료 현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성과를 거뒀다.

▲ (공공서비스 혁신) 광주교통공사·(주)아이지코

광주교통공사와 ㈜아이지코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가 1회용 우대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승차권을 발급받고, 하차 시 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무임 승·하차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양측은 목표 달성 시 광주교통공사가 QR 리더기 등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위해 광주교통공사는 역사 내 개집표기를 현장 시험·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지코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승차권의 QR코드를 개집표기에 설치된 리더기로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아이지코가 개발한 QR 리더기 등 관련 제품을 약 1.56억 원에 구매했다. 이에 따라 ㈜아이지코는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확보했으며, 광주교통공사는 2026년 10월부터 모바일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해 무임승차 대상자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 (기술 국산화) 인천국제공항공사·(주)안세기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안세기술은 겨울철 항공기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고 결빙을 방지하는 제·방빙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양측은 목표 달성 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당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항 내 실제 제·방빙 작업 현장을 시험·검증 공간으로 제공했다. ㈜안세기술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제·방빙 작업 가능 공간과 진행 상황을 작업자, 관제사, 조종사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양측은 현장 실증과 보완 과정을 거쳐 해외 기업이 독점하던 스마트 제·방빙 관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안세기술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약 53.4억 원 규모의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확보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12개소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해 제·방빙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중소 수탁기업이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4월「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혁신적 성과*가 창출된 과제에 한해 물량·매출 확대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과제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 혁신적 성과: 정부인증기술(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획득,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또한, 2027년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성과공유 실적 중 현금 배분 실적에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현금 배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과공유 과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물량·매출 확대 방식을 현금 배분 방식으로 확산해나가고, 성과공유제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의경	(044-204-7930)
		담당자	사무관	박강범	(044-204-7934)
		담당자	주무관	장혁준	(044-204-79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